

갈매기와 켄겔음

11기 홍순정

갈매기는 바다를 향한다
거친 파도가 무섭지 않다

머리 위로는
드높은 기상의 하늘이 있다

때론 하늘을 접고
켄겔음으로 땅 위를 걷기도 한다

필시
먹이를 보았을 것이다

나도 설레임 툭툭 튕기는
켄겔음으로 걸어 가고 싶다

내 식탁을 접고 먹거리 집에
모여 있는 벼들에게 가고 싶다

비 오거나 바람 거세거나
명문을 살아내고 있는 벼들에게
일향 향하고 싶다